

대서취합특휴하



영인시정
열린군산 07 2024
제327호

이번 여름,
군산에서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미식을 만끽하고



바다를 만끽하고



축제를 만끽하고



노을을 만끽하고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

아침에는 초록으로 물든 청암산을 산책하고
한낮에는 드넓은 바다로 뛰어들어 보세요.
해질녘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변 노을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여름 밤 축제를 한껏 즐겨봅시다.
물론, 구석구석 숨겨진 맛집을 탐험하는 재미도 빠뜨릴 수 없겠죠?

산과 바다, 들판과 강,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과
하고 싶은 거 하루 종일 만끽할 수 있는 곳

여기는 여름을 맞은 군산입니다.



2024년 7월호

Contents

04	기 획	민선8기 2주년 성과
06	군산은 지금	현장을 가다
08	군산의 경(景)	여름철, 가볼만한 곳
10	군산의 인(人)	동네서점 이야기
13	군산의 맛(味)	입이 즐거운 곳, 은파
16	군산의 길(街)	군산 핫플레이스
18	시민리포터	
19	오늘 어디갈까?	
20	군산 로컬푸드 이야기	
21	생활정보 특특	
22	도서관 소식	떠나봐요, 북캉스
23	이달의 건강 소식	고혈압 예방과 관리
24	우리 동네 이야기	지금 우리 동네는?
25	군산토박이의 일상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6	의 정	의회 주요 소식
28	시정 알림	시정 소식 및 알림
30	문화 산책	오늘을 되작이며, 부자가 되고싶다.
31	문화 · 공연 알림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4. 07. 제327호

발행일 2024. 6. 25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담당관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읽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군산시 공보담당관(☎063-454-2092)로 문의 바랍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온라인 (<https://www.gunsan.go.kr/main/m151>)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민선 8기 2년, 10대 성과

이차전지 첨단산업 기반 조성에서부터 '키움옴 가족 행복 도시' 비전까지 민선 8기,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 시민의 안전입니다. 생활안전 및 자연재해,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역대 최고의 강우량에도 인명피해 제로 도시로 주목받은 군산 앞으로 '안전이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철학을 시정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01

이차전지 첨단산업기반 미래신산업 선도 및 생태계 조성

이차전지 국가 첨단산업단지인 새만금 국가산단을 이차전지 핵심광물 가공 및 리사이클링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소재의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03

든든한 골목상권, 튼튼한 서민경제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개장하였고 이를 통한 안심물가제 운영으로 골목상권과 물가안정을 꾀하고 있다.



02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로의 도약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기능 보완적 발전방안을 위한 One-Port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특송화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통관장을 호남권 최초로 군산항에 개장하였다.



04

경쟁력 있는 강한 농·수산

농촌협약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설 원에 및 스마트 원예농업기반 조성을 하였으며 농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여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05 지역문화예술 향유 확대 군산문화재단 출범
 군산문화재단 출범을 통해 시민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06 고군산군도~시간여행마을을 잇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K-관광섬 육성사업 추진, 선셋드라이브 용역 착수, 광역해양 레저체험단지 착공 등 군산만의 역사 및 해양 문화를 융복합한 콘텐츠를 발굴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07 자연재난민·관 사전대응으로 인명피해 제로 달성
 상습 침수구역에 대형 빗물받이 설치 등 선제적인 폭우 조치를 통해 지난해 7월 평균 498.3mm 집중호우에 따른 450건의 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제로화 하였다.



08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1단계(고등학생) 시행
 이동권이 취약한 중·고등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계 부담 경감에 일조하는 복지 경제 정책으로 추진중이며 대상인원 7,539명 중 63.4% 가입, 카드등록 사용 52%를 기록중이다.



09 공부의명수, 자기신청장학금을 통한 지역 교육 기반 강화
 초·중등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향상을 돕는 공공학습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 중학생이 스스로 탐구영역을 정해 계획을 수립하면 연수비를 지원해주는 자기신청장학금 지원 등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10 인구대응담당관 신설 및 전략적 인구정책 체계 구축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감소 대응 프로젝트 '키움옴 가족 행복 도시 조성'의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구축하여 군산을 살고 싶은 정주도시로 변화시키고 있다.

2024 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
 일시 : 2024. 7. 6.(토) 9시~18시 | 장소 : 군산시청
 행사문의 : 454-2306 (기획예산과)

주요프로그램
 내가 뽑는 정책 마당,
 셸럽 토크콘서트,
 정책 스탬프 투어,
 시민 발언대, 체험존, 문화공연

사전 예약 링크



폐철도, 바람숲길이 되다.

군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현장에 가다.

일제시대 식민지 착취를 위해 놓여진 군산 철길. 한때 신문물의 상징이었던 열차는 시대의 흐름에 자리를 내어줬다. 비둘기호라 불리던 통근열차마저 운영을 멈추자 시내를 관통했던 기차는 철로만을 남기고 추억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폐철로에는 잡초와 쓰레기가 쌓여갔다. 여름철이면 악취와 벌레가 주민들을 괴롭혔다. 불법 경작으로 이웃 사람들끼리 부딪치는 일도 왕왕 있었다. 녹슬고 이가 빠진 철로는 흉물이 되었다.

애물단지가 된 폐철도 부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했다. 군산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이 곳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사정동 인근 조감도



현대메트로 타워 인근 조감도



황단보행교 하부



테크연결 교량부



사정동 공사현장



대명동 공사현장

하지만 좁고 길게 도심에 가로지르는 부지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도시에 바람길숲을 만들자! 폐선 철로를 따라 도심에 숨길을 뚫기로 했다. 하천과 산지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숲으로 조성된 길을 따라 도심 내부로 들어오게 하면 시민들이 건강한 호흡을 할 수 있다.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해결도 가능하다.

군산시는 도시바람길숲을 구상하였고 100억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폐철도를 따라 공사 펜스가 둘러진 길,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거대한 녹지축의 조성 현장이다.

1년 뒤, 생명의 숲으로 재탄생할 군산 도시바람길숲은 군산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내려 한다. 활력림(林), 여유림(林), 추억림(林), 어울림(林) 등 4가지 테마로 숲의 공간을 그려낼 것이다.

기차길을 따라 펼쳐졌던 군산의 이야기가 초록 바람을 타고 숲길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비둘기'가 달렸던 곳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시민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도시바람길숲. 이 길을 따라 우리들의 군산이 힘껏 날아오르리라 기대한다.

군산의 景 | 가볼만한 곳

군산 *여름* 여행코스 

멍하니 밤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본 적
있나요?

밤하늘 별자리처럼
수십 개의 섬들이 별무리를 이루어
바다 한가운데서 빛을 내는 곳

여기,
고군산군도입니다.

장자도 대장봉

●
뜨겁지만 생동감 넘치는 한낮의 눈부신
여름섬을 여행하고 싶다면...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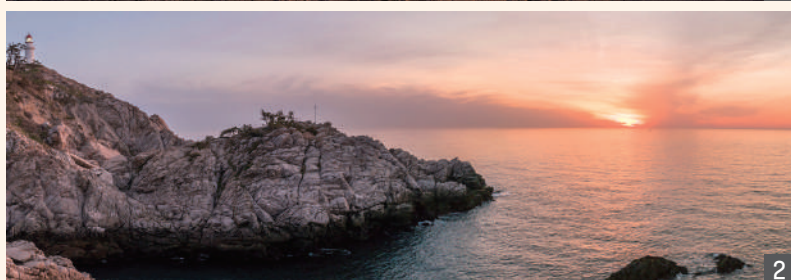
1. 고군산군도 전경 2. 방축도 3. 장자도 4. 선유도

●
지친 몸을 잠시 멈추고
황홀한 붉은 낙조의
여름섬을 여행하고 싶다면...



1

- 1. 선유도
- 2. 어청도
- 3. 말도



2



3



“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이 황량한 시대에
우리들에게 야트막한 사랑을 안겨줄
짧고 아름다운 작품을 모으려 합니다.

- 군산초단편문학상 공모글 중 -

”

군산에 자리잡은 13개의 동네서점들이 모여 일을 냈습니다.

작년 7월에 최초로 개최한 군산초단편문학상. 분량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이 발칙한 기획은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 멀리 해외에서까지 무려 2,719편의 글이 응모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지역의 작은 동네서점들이 주도하는 문학상 이벤트에서는 유례를 보기 힘든 열기였다고 평가기도 했지요.

군산의 동네서점은 무언가 다르다는 시그널을 주고자 군산초단편문학상을 기획했다는 이들.

‘군산책문화발전소’로 뭉쳐서 군산 서점만의 특별한 아우라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들

군산의 人, 군산 동네서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카페가 즐비한 월명동의 한 골목길에 위치한 아트북 서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리루서점, 버틀러북스토어, 조용한흥분색, 그래픽숍 책방지기들입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군산초단편문학상을 기획했던 마리서사, 선뜻 손을 잡아준 한길문고, 기다렸다는 듯이 힘을 보탠 그림산책, 봄날의 산책, 시간여행자의 책방, 심리서점 쓰담, 양우당, 예스트, 하늘책방도 함께 했습니다.

“왜 서점을 하시나요?”. 소멸 지도까지 그려질 정도로 사양 업종인 서점을 운영하는 게 궁금해서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서점의 간판, 책방지기의 개성적 큐레이션,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이 서점인가도 싶었습니다.

“식당하고 카페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곳도 있어야죠.” 나만의 감성과 철학을 담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이를 타인들과 공유하겠다는 책방지기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열정이,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군산초단편문학상은 우리 독립서점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대하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공모전 당시 주간에는 서점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공모전 업무를 강행했던 동네서점 대표들은 군산초단편문학상에 이러한 의의를 두었습니다.

마리서사 대표는 ‘서점은 독자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예비 저자들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문턱 낮은 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고, 주변 서점에 협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점들은 적극 동참하여 십시일반 상금을 모았고, 함께 밤을 새워 응모작을 정리했다고 해요. 군산의 서점들이 다 함께 운영하는 공모전이 된 것입니다.

공모전을 계기로 개인 서점의 존립 그 자체를 뛰어넘는 책임감, 자부심, 사명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독립서점들이 서로 연결고리로 이어져 동료가 되었고 합심하여 멋진 행사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산이라는 지역, 군산의 서점, 그리고 군산의 문화라는 키워드가 열정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군산 북페어를 계기로 책에 관한 한 선도적인 도시로 만들 겁니다. 군산을 문학으로 뒤집어 볼 거예요” 현재 동네서점이 뭉친 군산책문화발전소는 제2회 군산초단편문학상 [접수 : 6.15.(토)~8.17.(토)]과 더불어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군산북페어 2024’라는 행사인데 군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도서 박람회로 동네서점과 독립출판사 100여 곳이 각각 부스를 마련하여 책과 출판의 의미를 탐구하는 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행사는 건축가 김종업의 유작으로 알려진 구(舊)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한 ‘군산회관’에서 8.31(토) ~ 9.1(일)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군산이 책 문화 선도도시라는 인식을 퍼뜨리는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동네서점에 오면 항상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인터뷰에 참가한 리루서점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책을 쓰는 게 꿈이었다면서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고 하시네요. 동네서점은 ‘서점답지 않은 공간’이기에 진솔한 스토리들이 나누어집니다. 개개인을 아울러 지역과 동네의 문화를 누리는 공간이 된 것이죠. 군산에 소재한 독립출판사, 작가분들과도 네트워크를 이루었습니다. 서점을 이용하는 청년들과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 소통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동네서점. 군산에서 ‘책’ 하나로 뭉친 이들이 군산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과 직장 사이에 나만의 동네서점을 제3의 공간으로 마련하여 ‘우아한 혁신’에 동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빵, 당신의 행복 바게뜨과자점 이종길 제과제빵 명장



모두가 배고픈 시절, 그리고 모두가 무작정 상경을 했던 그 시절,
서울 영등포 시장 귀퉁이에 위치한 낡고 작은 빵 가게에서 풍기던 마법같은 빵 냄새를 맡았던 19살의 한 소년,
빵 냄새에 이끌렸던 소년은 훗날 그 냄새가 자신을 이 자리에까지 올려주었다고 회고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자!’ 군산의 사람, 빵쟁이 이종길 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제빵일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A 1979년, 열아홉살 무작정 상경 후 고된 배를 자극했던 빵 냄새와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말에 운명처럼 제빵기술을 익혔 습니다. 이후 1988년 귀향 하여 현재의 가게를 차린 후 35년간 쉽 없이 빵쟁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Q 제빵일을 배우던 시기에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셨을까요?

A 헛바퀴 인생처럼 늘 새벽 4시에 기상한 후 7시까지 영업하고, 저녁 10 시까지 다음날 반죽을 만들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장님의 장사 철학과 제빵기술을 배우며 '언젠가는 나도 내 손으로 내 가게에서 내 손님들께 빵을 대접 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슴에 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Q 명장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A 여러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천연 유산균 발효종'입니다. 18시간 이상 발효시켜 만든 유산균 발효종은 빵 본연의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밀가루를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소화율이 높습니다. 빵을 먹고 소화가 안되어 뱃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실까요?

A 저는 30년간 혼자 외롭게 제과제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와 같은 꿈을 꾸며 제빵사의 길을 걷고 있는 제 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딸과 함께 맛있고 특색 있으며 건강한 빵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대접하고 싶습니다.

名 匠

기술이 뛰어난 이름난 장인

꿈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꿈을 꾸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 없이
달려야 합니다.



군산시
명장을
소개합니다!

군산시 명장이란 우리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장기간 산업현장에 종사하며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군산시 명장 조례에 의해 군산시장이 매년 선정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선정된 군산시 명장을 독자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454-4353

진정 재미진 맛을 보고 싶다면
“은파호수공원”

*게미 : '씹을수록 고소한 맛, 그 음식 속에
녹아 있는 독특한 맛'이란 뜻의 전라도 방언



銀波 [은파]

해 질 무렵 반짝이는 윤슬이 아름답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은파호수공원'은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사계절 내내 그리고 낮과 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은파호수공원은

도심 속의 사랑받는 산책 코스이자 건강한 녹지공간을 품은 나들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은파호수공원은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분위기,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이 모여있는 맛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 군산의 味 | 은파호수공원에 위치한 다양한 맛을 미식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온새미로

- ★ 주메뉴 : 한정식
- ★ 특징 : 자연친화적인 전통한정식 전문점으로 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장류 모두를 주인장이 손수 담근다. 금중탕, 효종갱 같이 보기 드문 전통음식을 경험할 수 있다.



두메골

- ★ 주메뉴 : 보리비빔밥
- ★ 특징 : 은파유원지 음식단지 내 식당이라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 군산에서 재배한 흰찰보리를 이용한 보리밥정식과 구수한 청국장이 일품이며 김치, 장아찌, 도토리묵, 들기름 등 대부분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한소곰

- ★ 주메뉴 : 해물요리, 해물전골
- ★ 특징 : 외식조리과교수 호텔주방장이 직접 조리하는 해물요리 전문점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이고 그날 구입한 싱싱한 식자재가 사용된다. 살아있는 생물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특히 양념장, 불고기는 특허출원 중이다.



지수만풍천민물장어

- ★ 주메뉴 : 장어구이
- ★ 특징 : 초벌구이되어 나온 최상급 풍천민물장어를 질 좋은 참숯에 구워 맛볼 수 있는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이다. 동시에 푸짐하고 맛깔스런 반찬들까지 함께할 수 있다.



삼거리매운탕

- ★ 주메뉴 : 민물매운탕
- ★ 특징 : 군산을 대표하는 은파유원지 부근 민물매운탕집으로 국내산 빠가사리와 민물새우를 사용한다. 내륙으로 곡창지대가 펼쳐지는 군산의 특성상 치수를 담당하는 호수가 많았고 이러한 연후로 민물매운탕을 잘하는 곳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게 군산이다.



은파아리울

- ★ 주메뉴 : 파스타, 피자
- ★ 특징 : 은파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은 레스토랑이다. 30년 경력의 오피스쉐프가 운영하며 조리장 추천메뉴가 시선을 끌고 은파호수공원의 풍경이 맛을 더한다.

여름 일품 보양식, 민(民)어 아닌 민어탕

백성의 물고기라는 뜻의 민어(民漁)는 이름과는 달리 고급 어종이었다. 과거에 귀했던 민어는 주로 임금을 비롯한 고위층 관료들이 즐겨먹었다. ‘복달임에 민어탕은 일품, 도미찜은 이품, 보신탄은 삼품’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민어는 예로부터 최고의 여름 보양식으로 꼽힌다.

6~7월이 제철인 민어는 크기가 클수록 맛있다. 특히 수컷은 내장 옆에 덧살이라는 특수부위가 있어 인기가 높다. 조상들은 여름이 오면 민어를 탕으로 끓여 보신탄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며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기력이 쇠약한 노인이나 큰 병을 치른 환자들의 체력 회복에 좋다. 특이하게 ‘우는’생선인 민어는 산란기에 부레를 이용해 꾀꾀 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특히, 이 부레는 배진대기라 불리는 기름진 뱃살과 꼬리살, 껍질과 함께 별미 중의 하나로 꼽힌다.

군산은 민어가 많이 잡힌다. 여름이 되면 민어를 잡기 위해 전국의 낚시꾼들이 성황을 이룬다. 오늘 군산에서 갓 잡힌 신선한 민어와 갖은 야채로 만든 민어탕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하자.

재료준비(4인분) : 민어 700g, 미나리 한주먹, 양파 1/2개, 무 1/3토막, 청양고추 1~2개, 마늘 1스푼, 새우젓 1스푼, 육수(멸치, 다시마, 국간장 등)



만드는 방법

① 재료 손질

군산수산물센터에서 민어를 구입합니다.(탕을 끓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손질해줍니다. 민어회도 떼서 판매하니 참고하세요). 미나리를 포함한 야채는 씻어 준비합니다.

② 국물 만들기

냄비에 멸치 다시마 육수 10컵과 함께 국간장 2스푼을 넣고 무를 나박썰기해서 넣어 끓입니다.(취향에 따라 된장 1/4스푼을 넣어도 되요).

③ 조리하기

육수물이 끓으면 민어를 넣고 잠시 끓인 후, 준비해 둔 야채를 모두 넣습니다. 마늘과 새우젓도 첨가하여 뚜껑을 닫아 5분 정도 다시 끓여줍니다.

④ 완성

대파를 넣고 1분 정도 후에 불을 끄면 요리가 완성 됩니다.



군산 핫플레이스

군산의 네버랜드를 꿈꾸는 '피터팬승마클럽'

글. 군산시 시민리포터 박영미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한적한 시골길에 브레멘 음악대 조형물이 우뚝 서 있다. 그 아래 영문으로 'PETER PAN'이라 쓰여있다. 동심을 자극하는 상호와 조형물이 벌써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흡사 작은 미술관 또는 카페 같지만, 이곳은 군산 최초 공인 체육시설 승마장이다. 한국마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승마장이자, 군산교육지원청 지정 교육장이기도 하다. 맑고 푸른 성산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말과 교감하고 같이 운동하며 치유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요일 오전, 승마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모였다. 연령대는 다양했지만 유독 학생이 많았다. 학생들은 자신보다 몇 배 큰 말을 타고 승마를 즐기고 있었다. 긴장된 듯 보였지만 이내 열은 미소를 띠었다. 교관의 도움으로 말에서 내려온

학생은 말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나와 함께해줘 고맙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구간에는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그린 말의 그림도 붙어있었다. 말을 얼마나 애정하는지 알 수 있다. 얼룩무늬가 멋진 '프린스', 이 구역의 귀염둥이 막내 '클로버', 언제나 든든한 '엄지'까지 총 12마리 말이 이곳에 있다. 강습 후에는 말의 최애 음식, 당근을 직접 주며 교감은 더 깊어진다.

사실 승마는 어린 시절 배워두면 체력과 정서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다. 한번 배우면 말 타는 법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한다. 자세 교정, 순발력, 유연성, 근지구력 향상, 다이어트 등 신체적 효과는 일일이 열거 하기에 너무 많다. 특히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인터넷, 게임중독의 치료 스포츠라는 것도 놀랍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가지고 있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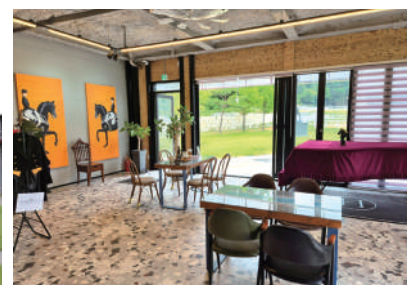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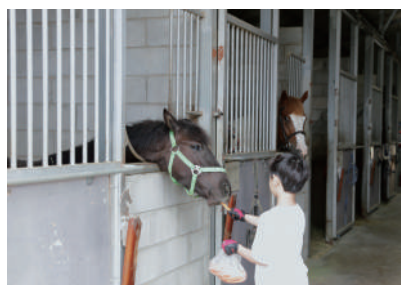
군산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은 피터팬 승마클럽도 매년 900여 명의 학생에게 승마를 가르치고 있다.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되는 학생승마체험은 자부담 9만 원(정부 지원 21만 원)만 내고 청소년 누구든 배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승마라고 하면 귀족 스포츠, 접하기 쉽지 않은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데 피터팬 승마클럽은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있다. 2015년 문을 연 이곳은 사계절 승마가 가능한 실내승마장과 야외 체험승마장, 마사 및 말 이색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더 나아가 승마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특별한 공간으로도 재탄생시켰다. 승마클럽 입구를 장식한 브레멘 음악대는 지역 작가의 작품이다. 푸른 초원 중앙에는 유럽에나 있을 법한 돈키호테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승마클럽 데스크이자 카페는 작은 갤러리다. 그림 한 점, 접시 하나도 허투루 놓지 않고, 승마용품과 어울리며 고혹적인 매력을 뽐내낸다.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랜드피아노의 선율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크지 않은 공간에 깊고 짙은 클래식 선율이 펼쳐지고 있다.

내년이면 10년 차인 피터팬 승마클럽이 이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는 한 사람의 집요한 열정과 노고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체육학 박사로 오랜 세월 교사로 지낸 온 김경환 대표가 40대 돌연 대학에 다시 입학하게 된다. 바로 마사과다. 오랜 세월 로망이자 동경했던 말 타는 일을 본업으로 삼은 것이다. 전문학사 졸업은 물론 국가공인자격인 재활승마지도사, 생활체육승마지도사 등을 수료했다. 고향인 군산에 승마장을 세운 이유는 단 하나였다. 타 지역으로 승마를 배우러 가는 장애 학생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고장에서 누구든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주저하면 멋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피터팬 승마클럽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말이다. 김 대표의 주저하지 않음이 군산 지역민에게겐 승마 교육장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을 탄생시켰다. 승마의 세계로 가득한 군산의 네버랜드, 피터팬 승마클럽에서 올해 멋진 일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피터팬 승마클럽 📍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128 ☎ 453-9971

📍 군산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 문의 | 동물정책과 454-2862



리포터 소식

고향의 "꿈"

리포터 유수경

나의 고향 군산은 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넓은 평야에는 곡식들이 자라고 시원한 바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선한 많은 생선이 나오고 군산의 흰찰쌀보리는 맛있는



음식의 주재료가 되기도 하지요.

산, 바다, 평야가 어우러진 살기 좋고 멋진 도시 군산이 나의 고향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던 타지 생활에서도 고향이라는 설렘과 그리움이 느껴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계정세도 어수선하고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 떠나 헤메이다 다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조용필 가수의 "꿈"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고향에서도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의 도시 군산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퇴근길의 군산의 노을이 더욱 멋져 보이는 저녁입니다.

2024년 전국금석배 축구대회

리포터 서정은

금석배는 매년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규모의 학생축구대회로 군산 구암동에서 태어나 1936년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등 한국 축구계에 큰 족적을 남긴 채금석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2년 창설된 대회이다. 고학년 U-18 40개 팀, 저학년 U-17 29개 팀 총 69개 팀이 참가하여 월명운동장 등 관내 7개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의 파이팅 하는 모습, 오직 축구공에만 집중하는 눈빛,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질주, 중간중간의 아찔한 장면, 그리고 골이 나왔을 때의 벅차오르는 환호!!! 90분 각본 없는 드라마가 군산 곳곳에서 써내려졌다.



금번 대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되길 바라며 몸과 정신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바라본다.

금번 대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되길 바라며 몸과 정신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바라본다.

현충일의 의미를 알아보며..

어린이리포터 정해인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며 이날 우리는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뜻에서 태극기는 조기 게양한다.



문득 궁금해졌다. 왜 6월 6일까?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은 6월 6일로 수확 후 모내기를 시작하는 날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기록에는 고려시대에 조정에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했다고 한다. 이후 1953년 국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고자 국가 차원의 제사 일을 6월 6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차이는 무엇일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지만, 순국선열은 일제강점기나 독립운동 등 역사적 사건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호국영령은 주로 6.25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게양을 잊지 말도록 해야겠다.

우리지역 서해랑길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리포터 강재인

주말 월명산을 걸으며 쓰레기도 줍고 생태 체험도 하는 플로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해랑길 클린워킹>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다.



서해랑길은 전국에서 걷기 좋은 길을 모은 코리아 둘레길 중 '서쪽 바다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군산시에서는 서해랑길 중 월명공원 산책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근대역사박물관 앞에서 출발하여 월명산을 돌아오는 코스를 쓰레기를 주우며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도 들으며 걸었다.

평범한 공원이라고만 생각했던 월명공원에서 재미있는 생태 이야기도 듣고, 나뭇잎을 활용한 손수건 염색체험도 하고, 많지는 않았지만, 거리에서 담배꽂초 등 쓰레기도 줍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오늘 어디갈까?

도심 속 오아시스는 어디에?



뜨거운 여름날에는 더욱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도심 멀리 안나가도 우리곁에 있는 시원한 도심 속 오아시스를 소개합니다.



소룡동 야외수영장

위치 : 해망로 546-10

시설 :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 슬라이드, 놀이시설 등



문화센터 물놀이장

위치 : 대학로 330(장미동)

시설 : 어린이풀, 유아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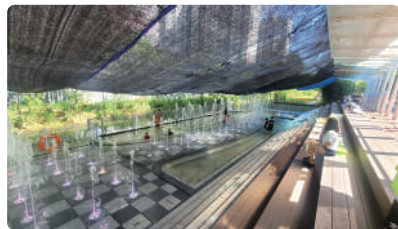
수송근린공원 바닥분수

위치 : 수송동 851



예술의전당 바닥분수

위치 : 백토로 20



미제천 수경시설

위치 : 미룡동 66-3

시설 : 물놀이장, 바닥분수, 관람데크 등



소룡동 선형공원

위치 : 소룡동 1393-16

시설 : 벽천폭포 및 분수대



은파호수공원 바닥분수

위치 : 나운동 산 243-3



매년 7월~8월경 운영되며 일부 시설물은 점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운영될 수 있습니다.

10년 열정이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

농부의 열정과 사랑이 담긴 군산 로컬푸드

생산자



로컬푸드 직매장
(군산 로컬푸드)



소비자

우리는 하루 세 번의 정성 어린 밥상을 받는다. 매일 세끼 부모의 정성, 배우자의 정성으로 차려진 밥상에는 농부의 정성도 빠질 수 없다.

농부는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키워내기 위해 열정을 다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정성 가득한 먹거리는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하고 안전하게 우리 식탁에 올랐다.

이것이 군산 로컬푸드다. 2014년 6월,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시작한 군산 로컬푸드는 현재 5개의 매장으로 확대됐다.

지역 농부와 군산시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주민 삶의 질까지 높인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농부의 열정과 사랑이 담긴 군산 로컬푸드.

오늘, 군산 로컬푸드로 저녁을 차려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군산로컬푸드직매장 | 군산시 해망로 224

군산 근대역사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직매장으로, 군산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 군산시 구암3.1로 103

산양유로 만든 음료를 판매하는 로컬커피를 겸비한 복합직매장으로 2024년 6월 1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판매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 군산시 번영로 162

도심에 위치한 대형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약 17만여 명의 소비자 회원이 찾고 있다.



동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 군산시 구암로 110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장과 주차장이 넓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옥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22

군산로컬푸드 1호점으로 2024년 6월 개장 10주년을 맞이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연간 37만여 명이 찾는 군산의 대표 로컬푸드직매장이다.



생활정보 특특

궁금하지만 어떻게 물어볼지 몰랐던 생활정보
일상을 살다보면 유용한 생활정보
알아두면 아는척하기 좋은 생활정보
생활정보 특특에서 대신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특특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생활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Q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공증서류 작성하기**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YouTube 군산시 유튜브 <http://www.youtube.com/>

영상으로 보는 군산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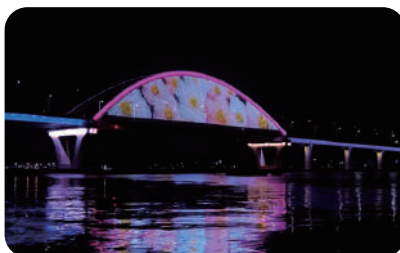
군산의 행정소식, 자연풍경, 지역명소 등
군산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군산시가 전하는 생생하고 특별한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군산을 알려드림
군산의 숨어있는 명소를 직접 방문하여 알려 드립니다.



공원튜브 | 함께해요
군산 왔으면 꼭 가보재! 싱싱한 수산물에 역대급 #노을맛집 까지!
#군산여행 필수코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군산풍경 | 힐링해요
밤이면 밤마다 꽃이 피는 동백대교
#미디어파사트 #영상쇼



군산시 홍보영상
수제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맥주. 블루스 밴드의 화려한 라이브 공연과 함께 수제맥주를 즐깁니다.
#군산수제맥주 #진짜우리맥주!

떠나봐요, 북캉스

유아



우산 대신 ○○
이지미 | 올리 | 2022
유난히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 주룩주룩 비까지 내린다. 우산을 대신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초등학생



맘
장현정 | 반달 | 2015
시원한 여름이 온다, 드디어 매미가 온다! 매미를 새롭게 보고 새롭게 느끼게 하는 작가의 놀라운 시선!



아델레2 - 생애 최고의 여름
자비네 볼만 | 황금시간 | 2021
일곱 남매가 맞이한 즐겁고 특별한 여름! 달라스 가족의 엉뚱 발랄 여름 방학 이야기

청소년



세이커
이희영 | 래빗홀 | 2024
“어떻게 하면 미래의 나에게 미안해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함을 발견하는 다섯 번의 시간 여행

성인



벌거벗은 세계사: 권력자편
tvN<벌거벗은세계사>제작팀 외 | 교보문고 | 2024
영국을 뒤흔든 바람둥이 왕부터 세계 최고 부자까지, 돈과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들이 뒤흔든 세계사 속 결정적 순간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녹나무의 여신
히가시노 게이오 | 소미미디어 | 2024
“추억을 되찾더라도 기회는 단 한번 이에요. 두 번은 없습니다.”
우연이 수차례 얽히고설킨 어둠 속 녹나무의 신비가 깃드는 순간 지금 단 하나뿐인 염원이 전해진다.

‘2024 이야기가 있는 코딩’

- ☞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디지털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즐거운 독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운영일시 : 2024. 7. 16.(화) ~ 7. 19.(금), 16:30~18:30 [총4회]
- 대상/장소 : 초등 4~6학년 10명(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
- 내 용 : 사서와 함께 책읽기, 나만의 이야기를 메타버스 속에 코딩으로 표현
- 주제도서 : ① **빙하섬을 지켜주세요**, ② **왜 유명한거야, 이 그림?**
- 참여모집 : 2024. 7. 8.(월), 10:00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 454-5630

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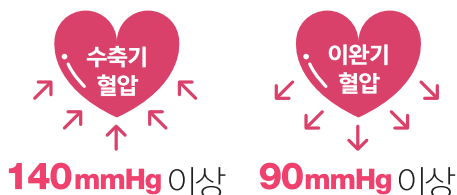
-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군산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세일정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수업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기간 : 2024. 7월 ~ 8월
- 운영대상 : 군산시민
- 수강료 및 재료비 별도

도서관	프로그램
시립도서관	▲가족과 함께 영어그림책 놀이(5~7세 및 가족/12팀) ▲요리로 읽는 동화이야기(초등1~3학년/15명) ▲창의력뿔뿔 과학교실(초등1~3학년/15명) ▲자신감UP 스피치(초등2~4학년/15명) ▲멘사셀렉트 창의보드게임(초등3~6학년/15명) ▲한뫼한뫼 마크라메(성인/15명)
금강도서관	▲그림책과 놀아요(6세/10명) ▲걸음마 영어 그림책(7세/10명) ▲흥미로운 과학교실(초등1~3학년/15명) ▲클레이와 종이접기(초등1~3학년/15명)
늘푸른도서관	▲조물조물 그림책(7~8세/10명) ▲동화 속 요리나라(초등1~3학년/14명) ▲호기심 팡팡! 과학교실(초등2~4학년/14명) ▲역사 보드게임(초등3~6학년/12명)
설림도서관	▲그림책놀이(6~7세/10명) ▲동화요리(초등1~3학년/12명) ▲토탈공예(초등1~3학년/12명) ▲과학실험(초등1~5학년/12명)
산들도서관	▲어린이 쿠키 클래스(초등1~3학년/12명) ▲흙놀이 공방(6~7세/8명) ▲과학을 삼킨 미술(초등1~3학년/12명) ▲창의력 UP! 보드게임(6~7세/8명)
작은도서관	▲성산-그림책놀이(7세/9명) ▲흥남-동화 속 요리쟁이(초등1~6학년/8명), 여름과일 쿠키만들기(7세~초등 6학년/12명) ▲미룡-과학실험(초등1~5학년/13명), 동화요리(초등1~5학년/13명), 한국사(초등3~6학년/13명) ▲월명-땃대손뜨개 교실(성인/8명) ▲개정-원어민과 동화책으로 풍덩(초등1~3학년/12명) ▲미성-풍당풍당 책놀이(초등1~6학년/10명)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어떻게 예방하는 거죠?

고혈압이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체로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이 어렵지만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정상 혈압	주의 혈압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	수축기 120~129mmHg 이완기 80mmHg 미만	수축기 130~139mmHg 이완기 80~89mmHg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	수축기 단독고혈압
수축기 140~159mmHg 이완기 90~99mmHg	수축기 160mmHg 이상 이완기 100mmHg 이상	수축기 140mmHg 이상 이완기 90mmHg 미만

[출처] 대한고혈압협회, '고혈압관리가이드북(2024)'

고혈압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3명은
고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 3명중 1명은
자신에게 질환이 있다는
것을 모름



고혈압 환자 5명중 2명은
혈압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하지 않음



고혈압 환자 5명 중에 3명은
본인의 혈압을 140/30미만으로
관리하지 못함



*2017 국민건강통계 참조

혈압약은 어떻게 복용하죠?

의사의 처방에 맞게 꾸준히 복용하며 대부분 아침 기상직 후 또는 아침식사 후 30분 후 복용합니다. 특히, 다른약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의 종류가 변경·추가된 경우,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거나(90/60mmHg)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시상담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7대 예방수칙

- 식단조절 : 소금 섭취 줄이고 골고루 먹기
- 체중관리 : 체중 관리로 혈압 낮추기
- 주5일, 매일 30분이상 규칙적인 운동하기
- 금연과 절주
- 스트레스 관리
- 혈압모니터링과 정기검진
- 약물치료



고혈압 치료의 핵심은 생활습관 개선 · 관리입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지금 우리 동네는”

경암동, 주민생활복합청사로 새 도약

경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경암3길 56'에 완공되어 업무를 개시한다. 지난 2021년 7월 구암초 유희부지를 매입하고 노후화된 구 청사를 철거한 후 착공을 시작한 신청사는 건축면적 3,980㎡, 연면적 1,991㎡, 지상 3층 규모의 청사로 다시 태어났다. 층별 구성은 1층에 민원실, 마을카페, 공유주방, 2층에는 작은도서관과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위원회실 3층은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기존 업무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생활 공간이 함께하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나운3동, 안전우산 네트워크 발족

군산시 최초 민관합동 재난안전 대응 모델이 발족하였다. 이는 자연 재난과 함께 방범·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아우르는 마을단위 재난안전 협의회를 구성한 최초 사례로, 소규모 점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주민들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나가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향후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은 자연재난, 방범, 소방 및 보건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조촌동, 클린 UP! 복지UP!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25가구에 세탁물을 당일 수거하여 세탁 및 건조 후 배달까지 지원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했다. 클린UP! 복지UP! 행복 빨래방은 6년째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흥남동, 한걸음, 우리 함께 마음산책 해요

흥남동 지역특화사업인 중장년 은둔형외톨이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사업은 관내 40세 이상 64세 이하,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 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기관인 본 심리상담센터,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등의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중양동, 어르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중양동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안전 손잡이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본사업은 관내 20가구에 대상자가 요청한 장소(화장실, 현관 등)에 설치되어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산토박이의 일상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024년 5월 20일부터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초록색 여권,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 확인 불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X
구여권 O
신여권 X

(파란색 신여권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확인 불가)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앱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1.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하고 다운로드
2. 앱 실행하고 개인 사용자 정보 입력 후 '개인입니다' 선택
3. 진료받는 환자의 국적에 맞는 언어 선택 (예: 한국어)
4. 개인정보 보호 설명 동의 / 약관 동의
5. 본인확인: 휴대전화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하기
6. 4자리 비밀번호 설정
7. 생체 인증 (지문 등) 설정
8. 발급 완료

환절기 감기에 걸린 산이 씨

접수 | 수납

신분증 주세요

네? 신분증 놓고 왔는데요.

모바일? 이거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네. 그럼 진료 못 보는 거?

진료 받으실 수 있어요.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 우선 진료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내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들고 병원에 재방문하면 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궁금해요.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가능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 건강보험 제정의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저는 두 달에 한 번, 약을 처방 받으러 늘 다니는 동네 병원만 가는데 매번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하나요?

본인 확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기관에서 다시 진료받는 경우,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요.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이 없어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으면 됩니다.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응급 상황, 거동불편자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처방약 조제의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요양기관과 시민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보, 아버님 휴대전화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받아 드려야겠어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증 조회

자극·본인확인 QR로 간편하게 진료 접수

※ 자극·본인확인 QR 접수는 일부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안전한 의료이용, 본인확인으로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등 지참 필수

※ 2024년 5월 20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단하게 접수하세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QR코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Google Play, App Store, 건강보험증, QR코드,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군산토박이의 일상툰」 이야기는 군산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gunsanpr>)에서 더 많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 익산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

- 새만금 메가시티 등 상생협업 방안 첫걸음 내딛어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은 소회의실에서 익산시의회 의장단(의장 최종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비롯하여 김우민 부의장 ·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이, 익산시의회에서는 최종오 의장을 비롯하여 한동연 부의장 ·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 ·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 ·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 ·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김영일 의장은 환영사에서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전북자치도 재정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북이 인구소멸·경제소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새만금 메가시티”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업 유치만 가지고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며 “익산과 군산뿐 아니라 전북의 위기를 생각해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가 서로 협업을 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익산시의회 의장단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도 답사에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지방 자치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오늘 자리가 군산·익산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은 “군산·익산이 인구·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생활권도 가깝다”며 “군산과 익산이 지역 소멸 위기에서 통합을 목적으로 나아간다면 군산·익산 나아가 전북자치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산과 익산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웃이 잘되어야 서로 잘된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등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 군산과 익산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사업 지역뿐 아니라 익산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메가시티 자체 용역을 하고 있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대화 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군산·익산이 형제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도 “인구감소 등 발등에 불떨어진 위기 상황에서 오늘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 간담회 개최가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며 “후반기에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군산·익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자”고 했다.

익산시의회 의장단에서는 새만금 3개 시군과 익산까지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관련해서 아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인 만큼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자고 했으며,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구상 연구 용역 결과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자리가 새만금 메가시티 논의에 대한 물꼬를 튼 자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의회 주요 소식 02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 새만금 3개 시군과 익산 포함한 새만금 통합 적극 주장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원은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 - 비수도권 광역화 경쟁,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이라는 주제로 참석해 김정기 전북도의원(전 전북도의회새만금특별지자체설치지원특별위원장)과 홍석빈 우석대 교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한주연 기자가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진행 상황, 비수도권 발전 전략, 전북자치도 소멸 대응·균형발전 전략 등에 대해 다뤘다.

김영일 의장은 서두에서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갈등으로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잡고, 도민 화합이 안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전북자치도지사가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총 774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전북자치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관할권에 대해서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해결과 새만금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 신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2026년 5만톤급 2선석,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날이 발전 계획이 세워져 있다. 김제에서 2호방조제를 근거로 신항만 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놓고 군산시민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성토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에 ‘도지사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는데 시행이 올해 12월이지만 얼마든지 도에서 3개 시군 갈등 중재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냐”라며 “또 ‘특자도’란 말을 왜 쓰겠냐, 특별하게 자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도지사는 충분위에 관할권 결정을 유보해 달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얘기해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관할권 분쟁을 멈추기 위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전북자치도 인구가 2050년이면 145만 명으로 줄어든다”며 “인구소멸·경제소멸로 가는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바로 새만금이다. 새만금이 통합해 세종시처럼 공공기관 유치해야 만이 인구도 늘리고 전북의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익산시의회의 의장단과 새만금 3개 시군과 익산까지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익산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새만금은 꼭 통합해야 한다. 통합을 하지 않고서는 전북자치도의 미래가 없다”면서 “또 전국이 무엇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었겠냐”며 새만금 지역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



군산시의
주요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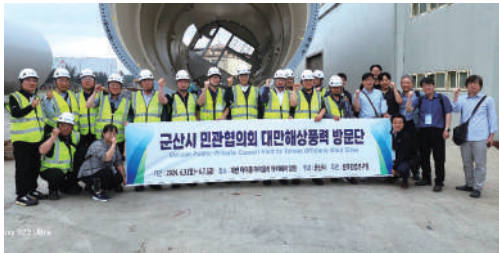
청렴한 군산을 만들자!

고위공직자 릴레이 청렴 캠페인 추진

군산시장을 시작으로 부시장을 비롯한 4급 국·소장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주관하는 '릴레이 청렴 캠페인'을 시작했다. '릴레이 청렴 캠페인'은 조직의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청렴도를 빠른 시일내에 올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획된 것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1명이 2주 간격으로 청렴 캠페인을 주관해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리더인 과장급 및 읍·면·동장들도 공직 내부에 지속적인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여 구성원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감사담당관 454-2123



친환경 재생에너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타이중 배후항만 시설 현장 견학
군산시 해상풍력 민간협의회는 지난달 대만 해상풍력 시설을 방문하고 현지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족한 민간협의회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 지원항만인 타이중항과 해상풍력 유지보수센터, 타워 제조 공장을 견학했으며 해상풍력 단지가 어업과 통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 또한 진행했다.

한편, 방문국인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을 미래 에너지로 집중육성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국내의 열매가 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1.4GW를 운전하고 있다.

☎ 새만금에너지과 454-4412



교육발전특구 지정 위한 업무협약체결

든든한 돌봄, 쟁쟁한 배움, 촘촘한 취업이음, 탄탄한 어울림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군산시, 군산교육지원청, 4개 지역대학, 교장단협의회, 고등학교, 대안학교, 산단협의회, 연구소 등 19개 협력기관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지원 확대 ▲지역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7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시 3년간 90억~300억원 사이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 교육지원과 454-2576



조국 위해 한 줌 흙이 된 호국영령을 위한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확장 공사

국가유공자의 편의 도모 및 예우를 위해 군경합동묘지 확장공사가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군경합동묘지가 현재 만장 상태이기에 시는 23억 사업비를 들여 이를 930기 평장으로 확장하고, 주차장 60면과 피걸러, 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식 묘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확장공사 완료후 사망 당시 10년이상 군산에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군경합동묘지에 이장 및 안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에도 힘쓰고 있다.

☎ 복지정책과 454-3063

INFO BOX

군산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2024년 1분기 자동차세 안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6. 16.(일) ~ 7. 1.(월)
 납부장소 전국 금융기관 및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과세대상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 은행납부 (전국은행방문, CD/ATM납부)
 -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앱, 간편결제앱, 금융앱)
 - 가상계좌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 시청민원실 20번 창구 신용카드 납부

☎ 세무과 454-2400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안내

사업대상 관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 대상 제외 : 보훈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소견서 및 처방전
 - 신분증, 등본,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생략)

* 대리인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군산시치매안심센터, 보건소분소, 대야분소)

☎ 건강관리과 454-5870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상시모집 안내

- 지원대상 - 만19~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의 청년직원
 - 타시군에주소를두고군산에서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계약 후 1개월 내 군산시 전입, 6개월 내 관내 창업가능자

지원내용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 임대료(최대 24개월)
모집규모 15명

접수방법 : 방문접수(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및 우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일자리경제과 454-4392

군산어린이공연장 휴장안내

휴장기간 6. 17.(월) ~ 9. 30.(월)

재 개 관 2024. 10월중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가능성 있음

공사내용 공연장 리모델링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742



2024년 인구의날 기념

키움 으뜸 페스티벌 안내

행사일시 7. 6.(토) 10:00~15:00
 행사장소 군산근대건축관 일원(해마로 214)
 주요행사

- 가족공감 토크콘서트 (10:40~11:30)
- 키움 으뜸 아빠 골든벨 (11:30~12:30)
- 키움 으뜸 어린이 골든벨 (14:00~15:00)
- * 골든벨행사는 사전신청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 키움 으뜸놀이체험존 (11:00~15:00)

☎ 인구정책담당과 454-2323

임피산업(농공)단지 분양 및 처분(매각) 안내

공 고 기 간 6. 17.(월) ~ 7. 1.(월)

접 수 기 간 7. 2.(화) ~ 7. 16.(화)

심사 및 결정통보 7. 17.(수) ~ 7. 22.(월)

	분양 공고	처분(매각) 공고
대 상	① 임피면 축산리 626번지 (8,021.2㎡) ② 임피면 축산리 627번지 (8,458.9㎡)	① 임피면 축산리 622번지 (7,101.6㎡)
가 격	① 임피면 축산리 626번지 - 920,905,950원 ② 임피면 축산리 627번지 - 971,157,850원	① 임피면 축산리 622번지 - 854,381,350원

☎ 산업혁신과 454-2754

어린이 미래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안내

행 사 명 「어린이를 위한 미래형 진로직업체험」

참여강좌

	6.29.(토)	7.6.(토)	7.13.(토)	7.20.(토)	7.27.(토)
의사	위조지폐 감별사	마케팅 전문가	증강현실 전문가	4차산업 컨텐츠 제작자	

일 시 6. 29. ~ 7. 27.(매주 토),
14:00 ~ 16:00 / 총5회

대 상 초등4~6학년 어린이(강좌별 25명씩)

장 소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 (5층)

참여모집 6. 17.(월) 오전 10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선착순)

☎ 시립도서관관리과 454-5632

저소득가정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안내

사업목적 저소득층가구의 시원한 여름나기 도모

사업내용 기업, 단체, 민간과 연계한 계절용품 지원

사업기간 2024년 6월 ~ 8월 (3개월간)

지원대상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지원물품 냉방기기, 여름용품, 영양구러미 등

☎ 복지정책과 454-3073

| 시 |

오늘을 되작이며

피우지 못한 무너리만 상처인줄 알았다
잘 살아내지 못한 삶만 상처인줄 알았다

믿음만큼 오늘을 살아도 미처 챙기지 못한 상처들
아픈 추억이 되고
부끄러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기까지
아름다운 것에도 나름의 상처가 있음을 알았다

참고 견디는 지순한 사랑이
더 뺏속을 후비는 것처럼
말치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음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살아도 사는 것이라 했는데
살아가는 정도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였다

티눈 박인 굳은살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상처도 허물이었다
어디를 끌고 가든
무엇을 이루어내든
상처는 남아 흔적을 남겼다

내일을 후벼내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 또한
모를 상처만 남기는 것은 아닌지

마음 둘 곳 없는 모진 흉터
아물어가는 생의 시간이 되어가길 빌면서
오늘도 뜯구름을 되작이고 있다



이 경 아
한국문인협회 우리말가꾸기 위원
국현대시인협회 이사
전북문인협회 부회장 역임
성원문학상, 전북문학상, 한국문학백년상,
한국현대시작품상 등 수상

| 에세이 |

부자가 되고 싶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날 가졌던 욕심과는 색깔이 다른 바람이 생겼다. 아무리 장수시대라고 너도나도 나이보다 젊은 척하며 사는 세상이지만, 어디 가서 밝히기 부끄러운 나이에 이르러 새삼 바라는 것이 있다면 흥이 될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돈 같은 사회 경제적 자산을 탐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전적으로 채워주지는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정서적 자산이 풍부한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보다는 무던하고 푸근한 사람, 화끈하게 결단을 내려 앞장서 치고 나가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그립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나이 든 사람의 힘없는 변명이며 자기방어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이 바꿔놓은 세상은 너무 과속 질주하고 사람들은 발전하는 문명에 발맞추기 위해 숨이 가쁘다. 나처럼 머리 회전도 몸짓도 둔한 사람은 자칫하면 넘어지고 걸뺏히면 멈춰서서 획책 지나치는 문명의 속도에 어질머리를 앓는다. 그렇다 해서 큰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청년들과 지도층이야 앞서 달려가라 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넉넉한 배경이 되어줌이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 나이 든 사람이 젊음과 겨뤄 내달리고, 하찮은 명예를 쫓아 혈떡이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언감생심 존경까지야 바라지는 않지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남은 생의 여정에서 욕심을 내 볼만한 일이다.

그런 훈훈한 평가가 하루아침에 거저 오는 것이겠는가? 부단히 자신의 가치를 가꾸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청춘을 낭비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일이고, 나를 허물지 않고 얻으려고만 한다면 가당찮은 욕심이니, 탐을 쌓듯 공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내 것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배려가 그렇고, 친절이 그렇고, 나눔이 그렇고, 사랑이 그러하다. 사촌이 눈을 사도 배 아파하지 말자. 그 사람이 눈을 사기 위해 남모르는 피땀을 얼마나 흘렸겠는가? 부러워는 하되 질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좋은 것, 좋은 사람, 좋은 일에 마음껏 부러움을 표현하고 공감할 일이다. 긍정의 파장에 기쁘게 휩쓸려볼 일이다. 슬픔을 함께, 기쁨도 내 일처럼, 부러운 일은 마음껏 부러워하며 정서 부자가 되고 싶다.



전 재 복
군산평생학습관 글쓰기 지도강사
한국시신인문학상, 월간스토리문학 신인문학상, 전북문학상,
바다와펜 문학상, 샘터문학상, 전북교원문학상, 한반도문학상,
신무군산문학상 등 수상



01 군산시립합창단 제77회 기획연주회
인문학콘서트 "노트르담, 그림자속 메아리"
빅토르 위고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의 인문학적 해석과 스토리 텔링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형식의 연주회

일 시 7. 4.(목) 19:3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관람연령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가능
티켓금액 전석무료 (티켓링크)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58

02 2024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FC온라인, 카트라이더 등 진정한 아마추어 게임 실력자를 가르는 대회

일 시 7. 13.(목) 10:00
장 소 군산월명체육관
부대행사 및 이벤트
- 보드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 게임, e드론 축구 등 체험프로그램
- 스템프 이벤트 / 경품 이벤트
☎ 문화예술과 454-3273



03 어린이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원작으로 덕지와 선녀님의 판타지 우정이야기를 그린 가슴 찡한 가족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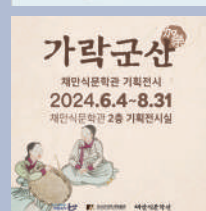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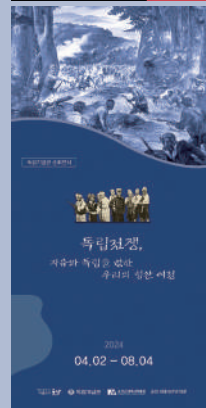
일 시 7. 27(금) ~ 7. 28(토) (11:00, 14:00, 16:0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가
티켓금액 덕지(R)석 30,000원 선녀(S)석 20,000원
☎ 예술전당관리과 454-5535



04 트레블 콘서트 (부다페스트의 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헝가리 부다페스트편으로 바이올린과 피아노 선율로 만나보는 아름다운 부다페스트의 밤을 피아니스트이자 여행가이드의 설명으로 만나보는 공연

일 시 7. 31.(수) 19:3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초등생이상 관람가
티켓금액 전석무료
☎ 예술전당관리과 454-5535



☎ 박물관관리과 454-7873

새만금을 활용한 스마트 탄소중립도시 군산

탄소중립·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